

목양칼럼

알래스카에서의 목상

지난 월요일 밤 첸웨이 전도사님으로부터 힘든 소식을 받았습니다. 목사고시를 치루기 위해 총회가 열리는 알래스카로 며칠 전 떠났던 첸 전도사님이 그 결과를 알려온 것입니다.

“목사님, 다른 모든 과목은 pass했는데 설교 과목에서 fail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목이면 몰라도 설교에서 떨어지다니. 아시는대로 첸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설교는 중국어 회중은 물론 한국어 회중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어왔고 중국어 예배 부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총회 장소에 도착한 장로님들은 총회와 고시부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목상해 보았습니다. 그 몇가지 목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펼치시는데 그것은 항상 신실하신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이다. 총회와 고시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이번 일로 총회 지도부가 각 교회의 비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첸전도사님은 더 겸손하고 더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중국어 예배는 더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민족선교의 비전은 기도와 성찰을 통해 더 힘있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고, 성도들이 참 아름답고 너무 보고 싶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4340, 4344, 4347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팽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손요한/총회교부 (646) 789-1118	찬다/중국어부 (929)204-6868
정진규/관리 (718)939-0005	홍현숙/서무 (201)759-0820
교육전도사 핑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손요한/총회교부 (646) 789-1118	찬다/중국어부 (929)204-6868
직원 정진규/관리 (718)939-000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찬양대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김보라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윤원상	지휘 / 최경희
반주 / 윤원주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5월 21일
제 43-21호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27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홍승룡 장로 2부 / 허경화 장로 3부 / 김용생 장로 4부 / 이무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에베소서 6:5-9	사회자
찬양 CHORUS	빛으로 살아가리라 신실한 주의 종들 나의 찬양의 노래 섬김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435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9/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제자훈련플러스 수료 예배 / 성경암송대회

오후 4:00 (5/21/17)	사회: 김성국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366	다같이
기도	박상용 집사
성경봉독	사회자

시편 119:18

말씀	김성국 목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성경암송대회

진행: 김근희 집사, 최효진 권사

찬송	199/1절	다같이
----	--------	-----

제자훈련 플러스 수료식

시상 및 광고	김성국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Mark 8:34-38	
Prayer	Dn. Mary Cho
Sermon	Rev. Peter D. Kim
"A Gospel Shaped Sacrifice"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С. Рахметова
1е Параллипоменон 4:9-10	
Молитва	Т. Рахметов
Проповедь	Владимир Сон
Благословение от Бога	

수요 기도 예배

뫼뫼 선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5/24/17)	사회: 조지영 집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석영지 집사
성경봉독	이지선 집사

로마서 16:1-2

찬양	찬양대
말씀	오인수 목사

우리 자매 뫼뫼

헌신찬양	뫼뫼선교회	
헌금	216	다같이
헌금기도	송소영 집사	
광고	김나영 집사	
찬송	213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18:6-14	
证道	陈玉捷传道
不可绊倒人	

새가족 환영회

제 6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전교인 한마음 축제

일시: 5/29(월) 오전 10시-오후 5시

러시아어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일시: 5/28(주) 오후 4:00 저녁예배

교회소식

5월 가정의 달 - 하나님공경, 부모님효도, 자녀사랑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5/21(주) 제자훈련플러스 수료 예배 / 성경암송대회	5/24(수) 뫼뫼 선교회 헌신 예배
5/28(주) 러시아어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5/29(월) 전교인 한마음 축제
5/31(수) 디모데 선교회 헌신 예배 /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6/3(토) 선교 바자회

알림

- 제자훈련플러스 수료 예배 / 성경암송대회로 저녁예배를 드립니다.
- 러시아어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를 5/28(주) 오후 4시 저녁예배 때 드립니다.
-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5/29(월)에 Belmont Lake Park 에서 있습니다.
- 선교 바자회가 6/3(토)에 있습니다. * 빈병과 현웃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7/2(주)-4(화)에 열립니다.
 - 강사: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담임)
 - 장소: Hudson Valley Resort
- 아가페 400호(7월호) 기념 백일장 안내
 - 행사주제 [시와 수필] 내가 만난 예수님, 비전-다민족 선교, 아버지(主)전상서
[성 화] 성경 속의 이야기(성경 내용 주제로 한 인물, 사건, 복음 등 그림, 디지털 이미지)
[카툰 사진전] 한마음 한가족 퀸즈장로교회, 아름다운 우리 부서 등(사진설명 첨부)
 - * 대상 상품: 김치냉장고 2) 기간: 6/11(주)까지
 - 문의 및 접수: 소유영 전도사, 채영주 집사, 아가페 편집부(kapcq2017agape@gmail.com)
- 특별활동위원회 신입단원 모집
 - Ainos Youth Orchestra: 기초반부터 고등부까지 상시 모집 및 오디션 진행. 문의: 김미연집사
 - G2G 어린이 선교 합창단 : 9월 기준 킨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오디션: 6/3(토). 문의: 채현주권사
 - 하랑 예찬: 9월 기준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오디션: 6/3(토). 문의: 이정훈집사
- 2017 여름학교 안내 1) 기간: 7/5(수) - 8/11(금) 2) 대상: Kindergarten - 12학년(SAT Class)
 - 문의: 여름학교 사무실(210호) (718)886-4646
- Us Open 퀸즈장로교회 친선 골프대회 안내 1) 일시: 5/27(토) 오후 12시
 - 장소: Middle Island Country Club(LIE exit 66)
 - Fee는 \$85(점심, 저녁포함)
 - 교회에서 9시에 출발.
 - 문의: 송동울 장로
- 울 여름 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은 각 교구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5/27(토) 토요일 충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2교구 (다음주: 3교구)
- 가족기념 장학기금 노선희 권사, 설주환, 설새봄

새가족

주삼열 (아론 1F5, 서정애 - 루디아), 주정인 (요한 1F5, 한지혜 - 뫼뫼)

교우소식

임 명 김원도 장로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회계
 소 천 오문현 교우(2F3) 의 부친 오영운씨께서 78세로 중국에서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졸업 송엘리아 5/15 St. John University 허남원 5/17 New York University
 최승표 5/18 Bos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 임세열 5/19 Villa Nova University

금식기도사

주 / 민준성 민지은 유정신 최치훈 최경민 오인수 오지현 박상용 박승희
 월 / 김경미 전혜순 이영희 김원도 김경미 이양미 김경미 박은혜
 화 / 김명희 전혜순 신혜진 이영희 박은혜 수 / 신기만 김화영 이애자 김재분 정점례 박은혜
 목 / 백순희 진동분 하수열 배희정 조경옥 박은혜 금 / 이화자 황복순 길길자 윤자숙 전광인 박은혜
 토 / 라티몰라키 라티몰영미 강혜영 남주인 박은혜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89	러시아어 예배	14	영어부	46	중등부	51
2부 예배	322	청년 선교부	82	유아부	45	고등부	50
3부 예배	349	주일 저녁 예배	521	유치부	46	청년 대학부	41
4부 예배	178	새벽 예배	1029	중국어 교육부	16	교회 학교 예배	482
영어 예배	171	수요 기도 예배	202	유년부	107	주일 낮 장년 예배	1651
중국어 예배	246	새가족 환영회	16	초등부	80	주일 낮 총계	2133

5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원도 장로

헌신기도(다음주)	김수산 장로	김원도 장로	정길표 장로	송동윤 장로
책임권사	김홍덕 권사	김청자 권사	최경선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현	임승룡 이숙규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선의 박새롬 정형진 조희주 권동은 조한결 김서희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이숙규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서희 박새롬 조희주 권동은 신예지 박재상 조한결 정형진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브리스가 아굴라 주일식사: 루디아 (다음주: 교포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퀀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넷서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소요리 문답

문 97)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피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20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9장 8-20절

에베소 거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책들을 잔뜩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마술의 비법이 담긴 책들은 생계 수단이었고, 은 50,000의 값어치였습니다. 은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 50,000은 곧 136년 이상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마술사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며 다 거짓이었다고 고백하는 이 행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면서” (8)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사람들 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진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구원자인지, 마술의 속임수가 아닌 참된 기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들었고, 치유의 기적을 통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놀라운 회심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433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9장 21-41절

에베소 극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달려들고는 도시의 여신 ‘아데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8)라고 두 시간 이상을 부르짖는데 이는 승리와 기쁨이 아닌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외침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우상 장수 데메트리오가 사람들을 격동시키며,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에베소의 신 아데미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으니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행동 같아 보이지만 실은 우상이 잘 안팔려 수익이 줄어 화가 났을 뿐입니다. 에베소 서기장이 실상을 보니 이 소요는 아무 까닭없이 일어났던 것임을 깨닫고 모임을 흠였습니다(41). 우리에게도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상은 내 욕심대로 안되서 속상했을 뿐인데... 우리 가정이 마음의 욕심이 아닌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4379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0장 1-6절

선발대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수련회를 가거나 행사를 할 때 미리 가서 답사하고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갈 곳에 미리 가서 준비하고 나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울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5). 에베소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살기 가득한 소요를 겪은 바울은 다른 지방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007 작전을 하듯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몇 개월 동안 여러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지체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일을 했지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며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298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0장 7-12절

설교시간에 졸은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었나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창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삼 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집회에 왔다가 변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깝습니까? 바울은 침착하게 내려가서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10)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계획대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요란하게 기적을 구하지 않고, 말씀과 성찬, 예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사실 말씀 성례 예배 외에 무언가 색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516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0장 13-16절

바울이 서둘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처럼 빨리 빨리 가려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16) 왜 그리 서둘렀을까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모금한 구제금을 사정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라도 빨리 전달해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올텐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그리 급한가요? 운전을 빨리 빨리 하는 이유, 아침에 서두르는 이유는 구제 때문인가요? 전도하기 위함인가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순서에 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제와 전도이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191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0장 17-38절

‘사지로 들어간다’ 라는 표현처럼 가야할 길이 죽는 길인 줄 안다면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에 한 발자욱 더 가까워 질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 없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 매여” (22)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비전과 방향을 줄 뿐 아니라 달려갈 능력과 담대함도 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소서.

합심 기도 / 주기도문